

## < 예술야시장 in 문래 > 보도자료

발신: 예술야시장

담당자: 서진희 M) [seoginy7@naver.com](mailto:seoginy7@naver.com) / E) 010-5116-3310/

F) <https://www.facebook.com/artyasijang>



(2015예술야시장 포스터)

### ■ 예술야시장

더 이상 예술가에게 발표할 공간이 중요치 않다. 아티스트들이 걷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술 공간이다. 피곤한 일상공간이 밤이 되면 예술가들과 함께 호흡하는 마법의 공간으로 바뀐다. 예술을 사랑하고 밤을 사랑하는 그 누구라면, 우리는 함께 하고자한다.

2015년 예술야시장은 철공소 거리와 예술가들이 공존하는 문래동에서 열린다. 공간은 없지만, 실력만은 최고인 예술가들이 뭉쳐, 한 밤의 꿈을 꾸기로 한다. 밴드공연, 움직임, 무용, 시각전시, DJing, Vjing이 야시장과 만나 풍성한 축제를 이룬다. 이 바탕에는 문래동의 열려 있는 철공소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큰 몫을 했다.

### ■ 2015 예술야시장

일시: 2015. 9. 5(토) 오후 7:00-

장소: 문래동 3가 철공소 거리

주최/ 주관: 예술야시장

총괄기획: 장일호

후원: 서울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 2015 축제지원사업 선정)

협찬: 정다방, J's CAVE

참여 아티스트:

신길역 로망스, 하현진, 쿨레 칸, 리오밴드, 전용준 밴드, 'DJ:MONSTR-K(MUSIGN RECORD)', 김태균, 백정기, 이대석, 송주형, 관계;대명사, 홀 레지던트, 김현민&손지민, 박성율×M(김제민)×장일호, 쥐뿔

---

## 예술을 사랑하는 당신과의 하룻밤, '예술야시장'

### 공연장? 전시장?

#### 우리가 만나서 노는 곳이 문화공간이 된다!

예술인들이 모여 함께하는 '예술야시장'이 오는 9월 5일, 문래동 3가 철공소거리에서 펼쳐진다.

공간은 없지만, 실력만은 최고인 예술가들이 뭉쳐, 한 밤의 꿈을 꾸기로 한다. 밴드공연, 음직임, 무용, 시각전시, DJing, Vjing이 야시장과 만나 풍성한 축제를 이룬다.

더위가 식어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무렵 '예술야시장'에서는 뮤지션들의 공연, 시각 예술가들의 전시, 무용 및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예술을 문래동 철공소 골목거리에서 한 번에 만나 볼 수 있다.

공연부문으로는 인디 뮤지션 신길역 로망스, 하현진, 서아프리카 뮤지션, 쿨레 칸, 재즈 밴드인 리오밴드와 전용준 밴드, DJ, MONSTR-K(MUSIGN RECORD)까지 국내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뮤지션들이 예술야시장과 함께할 예정이다.

전시부문에서는 김태균, 백정기작가를 비롯해 이대석, 송주형, 관계;대명사, 홀 레지던트 등 현재 미술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설치작가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실력과 현대 무용가 듀오 김현민&손지민과 미디어 아티스트 M(김제민), 재즈피아니스트 장일호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현대 무용가 박성율, 그리고 참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청년 아티스트 '쥐뿔'이 함께 해 예술야시장의 밤을 밝힌다. 그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와 예술 작품을 사고파는 마켓이 마련되어 야시장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예술야시장 대표 장일호씨는 "실력 있는 예술가들이 보여줄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전통 야시장을 떠올려, 밤에 깨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예술축제를 기획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철쭉철쭉 낮에는 철공소가 되었다가, 밤에는 새로운 호두까이 인형의 무대가 되는 문래동으로 가보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공소와 예술이 화합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입장권은 현장발권으로 5,000원으로 판매되며, 홍보물,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예술야시장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artyasija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 예술야시장 진행사진”

